

**열왕기하 22.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웠던 왕 ‘요시아’ 1. (왕하 22 장 1-20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기록된 ‘요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했고, 이때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고, 자신의 시대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한 성경적 평가. (1-2 절)**

- 1) ‘요시아’는 8 세에 유다 16 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 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1 절)
  - ‘요시아’의 아버지는 15 대 왕 ‘아몬’이었고, 할아버지는 ‘14 대 왕 ‘므낫세’였음!
    -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로 기록됨!
    - 참고로 할아버지 ‘므낫세’는 비록 유다 심판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지만, 노년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 그러나 아버지 ‘아몬’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 신복들에게 살해당함!
  - 그런데 ‘요시아’는 그런 조상들을 본받지 않고 역사 속에 가장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었음!!!
    - 분명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추측!
      - > ‘여디다’란 이름의 뜻은 ‘사랑 받는 자’란 뜻. => 그녀는 보스갓 ‘아다야’의 딸!!
      - > 보스갓은 헤브론 서쪽, 약 19Km 떨어진 오늘날 ‘아마지아’ 지역이라 추정!
      - > 아버지 ‘아다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단장하셨다’는 뜻.
    - 그녀는 분명 시아버지와 남편의 악행과 불행한 최후를 보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해 아들 ‘요시아’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노력했을 것!
    - 하나님은 그런 ‘여디다’의 노력을 보시면서, ‘요시아’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않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

2) 그럼 ‘요시아’ 왕의 평가는 어떠한가?

- 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
    - 참고로 유다 역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총 8 명!
      -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 ②.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함!
    - 유다 역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총 3 명! ->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 ③.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음!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히 곧은 길로만 갔다는 것!)
    - 유다 역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오직 ‘요시아’왕뿐임!
- 따라서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큰 극찬을 받으며 인정받은 왕이 됨!!

**2.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요시아’ 왕 (3-13 절)**

1) ‘요시아’ 왕은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6 절)

- 그럼 이때 ‘요시아’의 나이는? \_\_\_\_\_세
- 그런데 사실 ‘요시아’는 즉위한지 8년, 곧 16세때부터 개혁작업을 준비하며 시행했음!  
(역대하 34 장 1-7 절을 참고)
- ①. 16세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기록!
  - 오해하지 말자! -> 16세 전까지는 안 찾았던 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
- ②. 20세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함!
  - A.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함!
  - B. 백성들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림!
  - C. 그는 백성들 앞에서 바알의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찌고, 모든 우상들을 뿔아 가루로 만들어 우상숭배를 행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림!!
  - D.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함!!
  - E. 친히 유다 전역을 돌며 모든 산당과 우상과 제단들을 다 부시고 예루살렘으로 복귀!
- 이는 곧 유다 전역에 퍼져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며 유다를 정결케 하는데 6년이 걸린 것!!  
->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요시아’는 곧바로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며 재건하기 시작함!
- 여기서 참고로 그럼 ‘요시아’는 16세때부터 20세까진 무엇을 했을까?  
-

2) 이때 7절 주목해 보면, ‘요시아’는 일꾼들에게 준 돈을 ‘회계/감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 Why?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이 진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 곧 ‘요시아’는 먼저 저들을 믿고 일을 맡겼고, 그런 믿음과 인정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
  -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포될 것!

3) 이때 성전을 재보수하던 일꾼들이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여 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했고,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하였습니다. (8-11 절)

- 그럼 당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어떤 책일까?
  - ①. 이전 악한 왕들이 율법책을 파괴할 때, 어떤 경건한 제사장이 감춰두었을 것!
  - ②. 특별히 이 책은 모세 오경의 원본이든가 아니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본이었을 것!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이 발견된 때가 다름아닌 적극적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행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보수되며 제 기능과 역할을 되찾을 때였다는 것!!  
-> 곧 하나님은 ‘요시아’ 왕과 유다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노력할 때, 지금까지 숨겨두셨던 진리의 말씀을 되찾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4) 그럼 새로 찾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함! (11 절)

-> 특히 이때 ‘요시아’는 조상들과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분명하게 깨달음! (13 절)

->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말자!

②. 신하들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함! (13 절)

-> 13 절 주목, ‘너희는 가서 ...,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What the LORD wants us to do?)’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것!

->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3. ‘요시아’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갔습니다. (14-20 절)

1) 여선지자 ‘홀다’는 누구인가?

- 우선 성경은 그녀가 누구인지?(그녀의 족보)를 소개하기보다는 남편에 대해서 소개함!  
-> 곧 ‘홀다’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고, 남편 ‘살룸’은 예복을 주관하던 사람이었고, 저들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

①. 우선 ‘홀다’ 본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천민 출신이었을 것!

- 특히 ‘홀다’란 이름의 뜻은 ‘두더지’ 라는 뜻! 곧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님!!
- 그러나 영적으로 두더지가 땅을 파듯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도와 예복을 만들며 율법을 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택함 받았을 것!!
- 또한 그녀가 살던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성전 서북쪽에 새로 생긴 낮은 마을임.

②. 남편의 직업은 예복을 만들고 관리하던 사람!

- 아마도 왕실 예복이나 제사장들의 예복을 만들고 관리하던 하급 관리였을 것!
- 따라서 당시 ‘홀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 남편의 직/간접 상관들이었음!!

③. 남편 ‘살룸’과 ‘홀다’의 평소 대화나 관심은 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었을 것!

- 따라서 저들의 경건함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익히 잘 알려졌을 듯!
- 그로 인해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성전에서 가깝게 살던 여선지자 ‘홀다’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찾아갔던 것!!

2) 그럼 이때 ‘홀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 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행하실 것이라 선언! (16 절)  
->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했고 +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함!
- ②. 그러나 유다 왕(요시아)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 (19 절)  
-> 그 이유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고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
- ③. 따라서 ‘요시아’ 왕은 평안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할 것!